

미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우리 삼계탕



정병곤 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

얼마 전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중국 시진핑 주석은 한국산 김치에 대한 수입 문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김치의 중국 수출을 추진해왔으나, 중국 검역당국은 발효 과정에서 많은 유산균이 나오는 김치에 대해 엄격한 세균 검출 기준을 적용해 수입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이번 시주석 방문을 계기로 우여곡절 끝에 김치 종주국인 우리나라가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에 진출하게 되었다.

한편 지난 4월에는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검역·위생 문제로 10여 년간 막혀 있던 삼계탕의 미국 수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사례 모두 우리나라의 전통식품을 세계 최대시장인 중국과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그런데 왜 이들 정상이 방문한 시점에 이런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수입 허용 결정에 따른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농산물 및 식품의 교역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WTO/SPS 협정(위생 및 검역협정)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세계 각국이 검역·위생 문제 등을 이유로 비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미 농무성은 지난 3월 26일, 우리나라를 삼계탕을 포함한 가금제품 수입허용 국가에 추가하는 법률을 확정·공포했다. 국내산 삼계탕의 대미수출은 2004년 우리나라가 미국측에 삼계탕 수출승인을 요청한 지 10년 만의 일로 한·미 검역당국 간의 지속적인 협상과 민·관의 강력한 추진의 지에서 비롯된 산물이다.

미국은 농산물이나 식품을 수입할 때 그 절차가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우리나라 배를 수입하기 위해서 자국 검역관을 우리나라 과수원에 현지 파견하여 일일이 검사한 후 수입을 허용한다.

축산식품도 마찬가지다. 가축의 사육단계부터 도축·가공·보관·운반 등 모든 과정에 대해 자국 검역관을 파견시켜 위생관리 체계가 자국과 동등한지를 꼼꼼하게 평가한다.

사실 우리나라의 축산물 도축·가공 등 위생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열악하고 정부의 위생관리 체계 또한 미국의 시스템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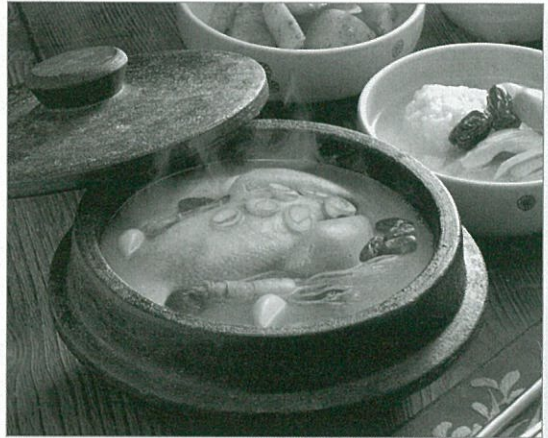
그럼에도 우리 업계와 정부는 대미 삼계탕 수출을 위해 미국의 관련 법령, 작업장 관리 시스템 등을 세세하게 분석하고, 또 이 내용들을 현장에 적용하고 개선하고자 부단히 노력했다.

2008년 우리나라 닭도축장 등을 처음 방문한 미국 검역관들은 우리나라 검역·위생 수준이 자국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만 남기고 떠났다.

그러나 우리 업계와 정부는 대미 삼계탕 수출이 우리 축산업계와 위생관리 수준의 자존심 문제라 생각하고 처음부터 준비와 점검을 반복했다.

그 결과 2010년 미국 실사단이 우리나라를 다시 방문했을 때는 모든 것이 미국과 동등한 수준이라는 평가결과를 얻기에 이르렀다.

이번 대미 삼계탕 수출은 절차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의 축산식품 수입 장벽을 뚫었다는



상징적인 의미 외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우리 축산 농가에 희망을 줬을 물론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덧붙여 우리나라 축산식품 안전관리 시스템과 위생관리 수준이 세계 정상 수준에 도달했음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국,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다른 시장개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0여 년간의 노력 끝에 미국인의 식탁에 오를 우리 삼계탕이 미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아 우리 축산업계의 효자 상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